

# 한국 YWCA

2017년 5월호  
May  
Vol.540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

### 탈핵문화제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폐쇄하는 6월18일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발표의 날로!

**일시** 2017년 6월 7일(수) 오후 2:00~3:30

**장소**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주관**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 동부지역위원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                  |                  |                    |
|------------------|------------------|--------------------|
| 강릉 033.651.1385  | 사천 055.833.2344  | 인천 032.424.0524    |
| 거제 055.682.4950  | 서귀포 064.762.1400 | 전주 063.224.5501    |
| 경주 054.772.8141  | 서울 02.3705.6000  | 제주 064.711.8322    |
| 고양 031.919.4040  | 서천 041.951.6400  | 제천 043.645.2580    |
| 광명 02.895.1966   | 성남 031.708.2503  | 진주 055.755.3463    |
| 광양 061.762.0012  | 세종 044.865.2432  | 진해 055.542.0020    |
| 광주 062.609.1300  | 속초 033.635.3523  | 창원 055.283.9488    |
| 김해 055.332.6000  | 수원 031.252.5111  | 천안 041.575.0961    |
| 남양주 031.577.7762 | 순천 061.744.7990  | 청주 043.265.3700    |
| 남원 063.632.7002  | 안동 054.854.5481  | 춘천 033.254.4878    |
| 논산 041.736.7393  | 안산 031.483.6536  | 충주 043.848.3240    |
| 대구 053.652.0070  | 안양 031.455.2700  | 통영 055.646.2547    |
| 대전 042.254.3035  | 양산 055.367.1144  | 파주 031.945.5998    |
| 동해 033.531.3007  | 여수 061.654.2161  | 평택 031.651.7701    |
| 마산 055.246.8746  | 울산 052.247.3520  | 포항 054.274.4444    |
| 목포 061.242.1611  | 원주 033.742.6090  | 하남 031.793.7771    |
| 부산 051.441.2221  | 의정부 031.853.6332 | 권역개발부 063.462.4491 |
| 부천 032.668.9700  | 익산 063.857.8910  |                    |

### 이달의 생각

새 정부에 바란다

### 기획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 : 탈핵, 성평등, 청년

### 특집

한국YWCA 95주년 기념예배 · 기념식  
95주년, 95개항-지금도 계속되는 종교개혁

### 인터뷰

<디어 마이 프렌즈> 노희경 작가



# YWCA 어린이집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운동의 선구자



1960년대 영세민 자녀를 위한 농촌지역 농번기 계절탁아소 운영 모습



1987년 인천YWCA 어린이집 기공식



1991년 마산YWCA 시범탁아소 개소식



2016년 청주YWCA 어린이집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확대되었으나 직업, 육아, 가사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YWCA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일찍이 보육운동을 펼쳤다. 특히 봉사활동 차원의 보육운동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부산YWCA는 한국전쟁 당시 세계YWCA를 통해 해외단체 구호금, 구호품으로 탁아소를 운영했다. 1960년대엔 도시지역 저소득 근로여성과 영세민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열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여름과 겨울에 계절탁아소를 운영했다. 1973년 이후 춘천, 전주, 순천 등에서 상설 탁아소를 갖췄고, 광주와 목포, 조치원, 대구, 청주 등에서 농촌지역 계절탁아소를 열었다.

그러다 1977년 국내 최초의 여성직업훈련기관인 근로여성회관을 구로구 독산동에 세운 서울YWCA가 1979년부터 근로여성의 영·유아를 돌보는 '아가의 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1985년 탁아운동을 위한 연합체가 조직되고, 기독교내 탁아문제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YWCA 보육운동은 더 활발해진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200명 이상 여성고용 사업장의 직장탁아소 설치의무화되고, 노동부는 근로여성을 위한 시범탁아소를 설치해 민간단체에 위탁했다. 1988년 노동부 후원의 인천YWCA 시범탁아소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원했다. 1989년 부산, 성남에 이어 1991년 마산, 광주, 전주까지 노동부 10개 탁아소 중 6개를 YWCA가 맡았다. YWCA 탁아소는 일반시설보다 4배나 긴 수탁시간에 이용료는 절반에 불과해 큰 환영을 받았다. 이후 YWCA 탁아소는 4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탁아소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 YWCA는 이후 '맡겨진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과 육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생명숲돌봄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7년 현재 YWCA 어린이집은 전국 22곳(수원YWCA 유아체능단 포함)에서 운영되고 있다.

# 2017.5 한국YWCA



**표지이야기**  
수원YWCA가 4월 19일(수) 수원시 장안구 수원YWCA회관 앞에서 '유권자참여 시민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2017년 5월 주요일정

- 6월 7일**  
신곡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
- 6월 8일**  
'길위의 평화학교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3차 포럼
- 6월 16일~17일**  
YWCA 어린이집 신입교사 연수
- 6월 22일**  
제5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 6월 28일~30일**  
YWCA 여성주의학교

### 제53권 제4호 통권 540호

2017년 5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린 · 정선경 ·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이기원 · 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새 정부에 바란다 | 안수경
- 05 **말씀 묵상** 믿음이 한반도를 구원하노니 | 장상
- 기획 새 정부의 과제**
- 06 **기획①** 새 정부 정책과 공약 : 탈핵, 성평등, 청년 | 편집실
- 08 **기획②** YWCA 유권자운동 현장 | 편집실
- 11 **특집①** 한국YWCA 95주년 기념예배 · 기념식 | 편집실
- 12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
- 14 **특집②** 95주년, 95개항-지금도 지속되는 종교개혁 | 김형국
- 16 **특집③**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 편집실
- 18 **인터뷰** <디어 마이 프렌즈> 노희경 작가 | 편집실
- 20 **이슈** YWCA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 배정미  
2017 여성평화걷기와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 편집실
- 23 **청년** "잊지 말아요, 세월호" | 강신혁
- 24 **이달의 현장①** 도봉숲속에서 탈핵을 만나다 | 공은혜
- 26 **이달의 현장②** 여성의 눈으로 성서 '다시' 읽자 | 김경민
- 28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광주YWCA 두레산악회 | 편집실
- 30 **원로에게 듣는다** 인천YWCA 강정희 증경회장 | 편집실
- 2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도서 '포스트휴먼 신학' | 유미호
- 30 **연합회 소식**
- 33 **회원YWCA 소식**
- 42 **일정** 6월의 한국YWCA

# 새 정부에 바란다



**안수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Y-틴위원회 위원장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제 19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 촛불 승리의 역사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부패비리, 적폐세력 청산을 촉구하며 들었던 1,700만 촛불의 힘이 만들어낸 대통령인지라 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과 책임은 더 막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목 놓아 외쳤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창립 95주년을 맞은 한국YWCA는 대통령선거 기간에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확인하면서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는 주제로 성평등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에게도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 성평등한 사회,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YWCA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책으로 꼭 실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YWCA 10만 회원들이 만든 유권자 선언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밝히며 우리의 바람을 전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사회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통령, 핵 없는 세상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대통령,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는 대통령, 폭력을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 불안을 넘어 안전한 세

상을 일구는 대통령, 분단의 갈등과 대립을 허물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대통령,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 진심을 다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YWCA가 희망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꿈이기도 합니다. “혼자 꿈꾸면 영원히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에 힘을 얻어 봅니다. YWCA 회원들이 꿈꾸는 세상이 새 정부가 꿈꾸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앞에는 경제회복, 복핵 대응, 청년실업 해결,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개혁, 재벌개혁,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조사, 개성공단 재개, 사드배치 철회, 핵발전소 폐기, 4대강 재자연화, 비핵화와 평화협정,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 성평등 실현, 복지국가 건설 등 지난 정부가 외면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기억하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반드시 실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촛불 민심을 받드는 대통령과 새 정부를 응원하겠습니다. 

# 믿음이 한반도를 구원하노니



**장상**  
목사·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의장

## 마가복음 10장 48~52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혈점령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개입하신 것이다. 1주일간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모든 군대가 침묵으로 행진했다. 즉, 기도로 행진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는 순간이었다. 길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께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비난했다. 바디매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다. 성경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실한 열망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겉옷을 버리고 허겁지겁 달려갔다’라고 표현한다. 달려온 바디매오에게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한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은 “네가 볼 것이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였다. 바디매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것이다.

100주년을 바라보는 YWCA 비전을 생각한다. 통일은 시대과제이자 한반도의 출구, 은혜의 기회다. 통일의 비전을 추구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시대의 발걸음이다. 신앙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가? ‘크리

스천의 믿음이 한반도를 구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도로 강구하는 준비와 열망 없이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예수님이 바디매오와 함께한 것처럼 한반도에 개입하시면 평화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요구된다.

YWCA가 소중한 것은 ‘십자가적’이라는 특징에 있다. 마가복음에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나온다.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우선되는 것이다. 수직적 차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수평적 차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YWCA는 십자가의 수직적·수평적인 차원에 함께한다. 수직적인 차원이 없으면 수평적인 차원은 공중에 뜨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잊게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확실히 세워야 한다.

성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가 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다. 마리아는 먼저 수직선을 확실히 세웠기에 칭찬을 받았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렇듯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의 믿음, YWCA의 믿음, 이 땅 크리스천의 믿음으로 한반도를 구하라’고 하시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을 것이다. 

# 탈핵 에너지전환, 실질적 성평등, 청년 일자리 만들기

탈핵, 성평등, 청년. 한국YWCA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정책으로 선정한 3개 분야다. YWCA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전국 52개 YWCA와 함께 10만 회원의 뜻을 모아 탈핵, 성평등, 청년정책 56개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선거 이후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대표 4,054 명이 연명한 정책제안서 전달, 대선정책 분석을 위한 50인 회의, 시민발언대 설치,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쳤다.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성평등, 청년분야 핵심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 탈핵: 40년 이내 '원전제로 시대'

**탈핵 공약**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핵심이다. 40년 이내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원전제로 시대'를 표명했다. 먼저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며, 월성1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4호기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공언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피해를 감수하는 지역주민에게 전기요금지원 등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시대의 막을 내리고 청정에너지인 LNG발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복원하며 친환경과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에너지산업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 성평등: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성평등 공약**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에 잘 나타난다.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로 완화하고, '블라인드 채용제'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공약했다. 남녀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여성 장·차관 비율을 30%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여성폭력 근절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을 포괄하는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성주류화' 추진 실효성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여성 1인가구 복지를 위해 임기 중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공약했다.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해 세일센터 등 취업알선책임제를 도입·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과 동시에 고용유지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청년: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청년 공약**은 일자리 문제를 우선으로 했다. 먼저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부문은 5%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 500인 이상 4%, 1000명 이상 5%로 규모에 따라 적용할 것을 공약했다. 더불어 '스펙 없는 이력서'와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직활동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구직 촉



YWCA가 참여한 범여성계연대기구와 여성신문이 4월 21일(금) 주최한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성평등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여성신문사>

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해 상담과 취업알선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한편 청년창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형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육성기반 확충을 공언했다. '성실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

성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 재교육, 재창업자금과 투자펀드 확대를 공약했다. 더불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월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대도시 역세권 시세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를 약속했다.

## 탈핵

### 40년 이내 '원전제로'

-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 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 원전-석탄화력발전 피해 지역주민 전기요금지원 등 강화
- 신재생에너지 비용 향상 및 일자리 창출**
- 태양광, 해양풍력 등 산업육성으로 신재생전력량 20%로 향상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한시적 도입
- 차세대 에너지산업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

###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

- 원전-석탄발전용 연료 과세 강화
- 친환경과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 강화

## 성평등

### 실질적 성평등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남녀동수 내각 50%까지 확대
- 남녀임금격차 OECD 평균 15.3%로 완화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알선책임 강화

## 일가족 생활의 균형

- 육아휴직 첫 3개월급여 소득 대체율 80%로 상향 (상한 200만원)
- 30일 유급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
- 보육료 현실화

### 젠더폭력 방지

- 젠더폭력처벌과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
- 가정폭력문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정책방향 전환
-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

## 청년

### 일자리

-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민간 확대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와 적용범위 민간대기업 확산
-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과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 주거

-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 월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대학소유 부지 등 개발로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 YWCA 유권자운동, 희망세상 만든다



전국에서 펼쳐진 YWCA 유권자운동이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한국YWCA와 52개 회원YWCA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내용의 'YWCA 유권자선언'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대선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국민의 절실한 바람을 귀담아 듣는 대통령을 뽑기 위한 '시민발언대'도 운영했다.

또한 지역위원회 시범YWCA로 선정된 광주YWCA(서부), 부산YWCA(동부), 서울YWCA(북부), 안양YWCA(경기), 청주YWCA(중부)는 각각 10인 정책단이 참여하

는 원탁회의를 꾸려 대선후보 공약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 정책분석을 위한 50인 회의'가 구성되었다.

한국YWCA는 탈핵, 성평등, 청년 3개 분야 56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YWCA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 YWCA 정책제안서는 전국 10만 회원을 대표하는 4,054명이 서명한 연명요구서와 함께 5개 원내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전달되었다.

광양,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서울, 수원, 순천, 안양, 여수, 전주,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춘천 등 19개 회원 YWCA에서 유권자운동 현장을 기록한 사진을 보내 왔다.



광양YWCA



광주YWCA



대구YWCA



대전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서울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양YWCA



여수YWCA

## 4,054명 연명한 YWCA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

- 1 정책요구서
- 2 더불어민주당
- 3 자유한국당
- 4 국민의당
- 5 바른정당
- 6 정당



한국YWCA연합회는 5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5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당 심상정 후보에게 YWCA 대선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총 440쪽의 제안서는 △탈핵, 성평등, 청년분야 정책제안 △국가방사능 방재대책 재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YWCA 회원대표 핵심공약 정책요구 연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요구 연명서에는 연합회와 전국 51개 회원YWCA 대표 4,054명이 서명했다.

# 부끄럽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생명의 바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편집실



전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창원YWCA



청주YWCA



춘천YWCA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 새 정부, 탈핵을 부탁해!

YWCA 등 전국에서 26만명 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YWCA를 포함해 탈핵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시민 단체들은 4월 26일(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26만 1,027명의 서명을 받았다. YWCA는 전국에서 2만 6,903명의 서명으로 힘을 보탤다. 심상정 후보는 직접 '잘가라! 핵발전소'에 동의하는 서약을 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서약에 참여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본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체 서명용지를 직접 전달하고, 탈핵공약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 일본YWCA “과거 역사를 깊이 반성한다”

국내의 인사들의 격려와 당부가 이어졌다. 데보라 토마스 세계YWCA 회장, 후지타니 사토코 일본YWCA 회장,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한국 최초 여성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주선에 한국YWCA 명예연합위원, YWCA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 황진 한국YWCA 전국연맹 이사장, 청년기업가 고다연, 이수민 광주YWCA 어린이집 회원이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왔다.

일본YWCA는 한국YWCA의 '고백'에 대해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한 것을 포함해 과거 역사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1922년생으로 YWCA 사무총장을 지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면서 여성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한국YWCA를 격려했다.

기념예배는 정운형 한양대 대학·청년Y 회원의 국악찬양에 맞춰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최형선 실행위원, 정유진 실행위원이 기도문을 낭독하며 시작했다. 김형국 나들목교회 목사가 '95주년, 95개항-지금도 지속되는 종교개혁'을 주제로 설교했고, 최선화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과 이서영 Y-틴 전국협의회장이 헌신과 다짐의 기도를 했다.

기념식은 3부로 진행되었다. 1부 '돌아봄'에서는 이 땅의 아픔과 현실, 하나님의 마음, YWCA의 회개를 형상화한 무용극과 종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다음으로 창립 95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이명혜 회장), 광주YWCA(민혜원 회




1922년 세워진 한국YWCA가 창립 95주년을 맞아 4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이화역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기념예배·기념식을 열었다. 전국 52개 회원YWCA 회장, 이사, 위원,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된 이번 기념예배·기념식 주제는 '고백'이다.

YWCA 초기정신을 되새기고 회복하자는 뜻의 '과거를 돌아보다'(Go Back), 지금의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자는 '오늘을 고백하다'(告白), 내일을 향한 비전과 희망의 행진을 시작하자는 '100년을 향해 나아가다'(Go 100)란 뜻을 나타낸다. 특히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라는 제목의 고백(告白)을 통해 지난 과거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역사에 대한 시대적 책임감을 인식했다(전문은 12-13쪽).

장·서육희 사무총장), 서울YWCA(조종남 회장·양선희 사무총장) 대표들이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 전문을 낭독해 감동을 더했다.

2부 '오늘에서 내일을 보다'에서는 이명혜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의 목에 손수건을 묶어주면서

환영인사를 나누었다.

3부 '100년을 향하여'에서는 95주년 기념사업 소개, 가수 홍순관의 노래, YWCA 회원들의 희망이야기, 소망쪽지를 넣은 타임캡슐 봉인으로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막을 내렸다. 

##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

깜깜한 일제시대 민족 수난의 역사 속에 각성한 젊은 여성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주 독립과 여성해방의 등불을 켜게 하신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YWCA를 95년 동안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빛나는 은총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총 앞에서 우리 걸어온 날들을 깊이 성찰하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부끄러움과 아픈 회개의 마음을 꺼내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은 어둡고 힘들던 시대마다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하며 불의와 맞서 싸우려고 하였으나, 선지자로서의 외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에 주저했습니다. 우리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부끄럽게도 권력자들과 타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현실의 아픔을 되새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암울한 일제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달픈 민중의 희망이 되고자 온몸을 바쳤던 YWCA 일꾼들의 고통과 희생에 눈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자주독립을 원했으면서도 일제의 침략전쟁에 침묵하고 조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소녀들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눈 감고 귀 막음으로써 정의이시고 평화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본YWCA에 속함으로써 이 땅에 조선YWCA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던 이 땅의 청년, 노동자, 농민들이 희생될 때, 온전히 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젊은 여성들이 YWCA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이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목소리를 듣고 변화의 주체로 세우는 데 힘을 쏟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소명을 받았음에도 70여년간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 땅의 미움과 갈등을 멈추고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데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자매이고 형제임을 고백하면서도 이 땅의 가장 아프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신주의와 성장주의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에 영성 회복과 생명살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양적 성장과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럽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전후 독일교회가 했던 죄책고백을 다시 떠올립니다. “더 용감하게 증언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으며, 더 즐겁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데 대하여 우리는 자신들을 책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와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두운 망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믿음을 기꺼이 실천하며 자매, 형제,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새 출발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95년 전 이 땅 여성들의 가슴에 불 밝히신 각성과 소명의 빛을 다시 우리들 가슴 속에 뜨겁게 밝혀 100주년을 향한 새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YWCA가 95년 동안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이 아픈 회개와 고백이 더 큰 생명의 바람으로 일어나도록 힘을 주소서.

정의, 평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95주년, 95개항 지금도 지속되는 종교개혁

김형국  
나들목교회 목사

4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YWCA연합회 창립 95주년 기념예배에서 김형국 나들목교회 목사가 '95주년, 95개항-지금도 계속되는 종교개혁'을 주제로 설교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중세교회 타락을 보고, 성당 문에 게재했던 95개 조항을 통해 종교개혁이 발전했습니다. 95개 조항은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올해 95주년을 맞은 YWCA에 종교개혁 정신이 계속 흘러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사상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 중 첫 번째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Sola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영광(Soli Deo Gloria)은 모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윤리의 문제, 권력의 문제 등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나라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하나님나라를 잘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평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지고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선한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YWCA는 소중한 단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YWCA로 불러주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정도를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영적 성숙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문제이지만 기독교단체도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기독교단체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YWCA는 그중에서 가장 건강한 단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속적인 가치가 혹시 YWCA에 침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YWCA 리더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어



95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하는 김형국 목사

떤 세속적인 것들이 조직 속에 있다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누구에게도, 어떤 지역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 젊은이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라


YWCA는 95년이나 된 조직입니다. 조직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죽어가는, 또 죽어있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통이 본질을 잡아주는 형식이었고,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형식은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형식과 전통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노령화의 문제도 기독교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균형이 잡히며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약점도 생겨납니다. 조직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바뀌고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시간이 지나 규모와 자본을 갖추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규모와 자본만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부터 뒤로 물러서 주어야 합니다. 병풍처럼 서서 그 안에서 뛰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위험을 막아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병풍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젊은 세대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고 이끌어주고 멘토링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존경받는 어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는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배우고 이끌어주고, 또 열심히 뛰고 보호해주며, 함께하는 것이 조직으로서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나라에 대해 배우고, 눈이 열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형식적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야 합니다. 이 시대 YWCA를 하나님의 기관으로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이 YWCA에 있을 때 100주년을 맞으면 새로운 비전이 공포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또 다음의 YWCA 100년을 내다보는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김보영


인천YWCA 대학청년Y 회원, 청년기자단 1기



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YWCA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이루고자 애쓰는 방송인들을 응원했다. 백혜진 심사위원장은 "예전에 비해 2-3배 넘는 추천작이 접수되었다"면서 "지역방송, 케이블방송, 전문방송채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골고루 추천되었다"고 밝혔다. 1차심사에서 선정된 16편 중 최종 수상작 5편이 결정되었다.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이 4월 20일(목) 오전11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1996년 한국YWCA가 제정한 이 상은 시청자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진영 O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좋은 TV 프로그램상 소개 영상, 경과보고, 심사보고, 시상식, 밴드 '잔나비'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혜 회장은 "언론

성평등 부문상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조명한 SBS <SBS스페셜> '잔혹동화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생명평화 부문상은 재난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공론화한 OBS <창사9주년 특별기획>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 올해 신설된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끈질긴 탐사취재로 국정과탄의 실체를 밝혀낸 JTBC <JTBC 뉴스룸>, 대상은 여성연대 관점으로 여성과 노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준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가 받았다. 

##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JTBC <JTBC 뉴스룸>



### 손석희 앵커 "고생에 대한 다독거림이라고 생각한다"

"재작년 상을 받았고, 작년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상을 받아서 올해는 못받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문을 만들어주셔서 받게 되었습니다(웃음). YWCA 활동가 분들이 뽑아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을 받으러 가면, 어깨가 무겁고 뒷목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YWCA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했다'고 다독이는 느낌이라서 즐겁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1년에 대한 다독거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제작진과 기자들이 훨씬 많이 고생합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 대상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 노희경 작가 "관찰만으로도 치유가 되었다"



"어머니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내 얘기 같아서 먹먹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미리 살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간, 남녀간 갈등을 치유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찰만으로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친구간, 세대간, 남녀간 갈등을 조장하고 그걸로 이득 보는 세력이 있다

는 걸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대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정의, 생명, 평등이 따뜻한 감동으로 오는 자리라서 좋고,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생명평화 부문상

### OBS <창사9주년 특별기획>

###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

### 고기훈 PD "트라우마 치유에도

### 골든타임이 있다"



"무겁고 가슴 아픈 사연을 다뤘는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습

니다. 미국은 9.11테러가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유해를 발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기본 장치를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3명 이상 사망사고에 정신과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파견합니다. 트라우마 치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 치유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성평등 부문상 SBS <SBS스페셜>

### '잔혹동화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 박성철 PD "여성들이 당당하게 얼굴 들고 목소리 낼 때"



"여성들이 왜 일상적인 공간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대부분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전 프로그램 대부분에서는 여성 출연자들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성분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연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상 EBS <하나뿐인 지구>

### '이상한 나라의 죽음-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 김민지 PD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제로 벌어졌던 누군가의 고통이나 죽음의 이야기를 담아서 좋은 상을 받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내내 정부와 기업은 침묵했고, 그 끝에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론도 그제야 늦

장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웠고, 왜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을까 뼈아픈 죄책감으로 취재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을 희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 여성연대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

## <디어 마이 프렌즈> 작가 노희경

편집실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에서 드라마가 대상을 받았다. 노희경 작가가 집필한 tvN <디어 마이 프렌즈>이다. 그동안 소외된 존재로 여겨졌던 노인, 여성, 장애인을 '삶의 존엄성' 관점에서 깊이 있게 조명하고, 여성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드라마가 대상을 받은 것은 1999년 KBS <학교> 이후 두 번째다. 5월 12일(금) 오후 서울 홍제역 인근 카페에서 하루의 글쓰기를 마친 노 작가를 만났다.

◀ 인터뷰 질문에 답하는 노희경 작가

### 사람이 전부다

사람과 삶, 가족과 사랑. 작가 노희경을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1995년 MBC 베스트극장 <엄마의 치자꽃>으로 데뷔했다. 인간에 대한 섬세한 관찰, 인생에 대한 따뜻한 통찰, 특유의 진솔하고 감성적인 대사는 <거짓말>,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등을 통해 '노희경 마니아'를 탄생시켰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로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다.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 <빠담빠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등을 거쳐 2016년 <디어 마이 프렌즈>(디마프)로 돌아온 그는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극본상, YWCA 좋은 TV프로그램상 대상, 방송비평상,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작가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누가 늙은이 이야기를 궁금해하겠냐고 했지만 끈대들 이야기로 젊은 시청자까지 사로잡았다. 작가주의 드라마를 구현하는 몇 안 되는 작가로 꼽히는 이유다.

'사람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그만의 '사람 이야기'에 대한 깊은 탐구는 자신의 삶이 원천이다. 그는 1966년 경남 함양

산골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한영반지 못한 탄생, 버림받을 뻔한 어린 시절, 방향의 청소년기를 보냈다. 삶의 경험은 좋은 글감이 되었다.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함도 몰랐을 것이라는 그는 '잘 나가는' 작가가 되었지만 주변은 그대로다. 그래서 그의 작품 중심엔 언제나 소외계층,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나는 가난한 서민, 아니 기저층 출신이다. 마포 산동네에 살았다. 10년간 철거가 지속됐는데 그 흥흥함은 말도 못한다. 폐허가 된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유년과 청년시절을 그 곳에서 보냈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낫다. 지금의 나는 분명 기득권이다.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 그들이 나처럼 기득권이 되었으면 계속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나는 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정서를 잊지 않는다."

그는 아파보고 패배해봐야 남의 아픔과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마프>의 시작도 어머니로부터 출발했다. 살아서는 그냥 어머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자신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다. 인간 자체로 좋고 삶 자체가 그냥 예뻐던 어머니, 그런

사람들의 마음만 보여줘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자신의 얘기더란다. 모양새만 주글거린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딱딱해졌다. <디마프>에 눈물을 쏟은 사람들은 화면 속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보고,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을 떠올렸을 것이다.

### 여성억압의 상처, 연대, 치유

그의 경험은 작가로서 섬세한 관찰, 취재, 경청, 학습을 통해 리얼리티와 공감으로 이어졌다. 작품마다 그의 시선을 드러냈고, 사회문제를 일깨우며 대중과 호흡했다. <디마프>에서는 엄마 세대에 대한 헌사 자체로 사회적 소수자로 억압받은 여성의 아픔을 증언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치유해야 할 상처로 여성문제를 꼽았다.

"작가 '노희경'으로 사는 데는 불편함이 별로 없지만 여자로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성차별 문제는 분명히 있다. 요즘 여성 취업준비생을 취재하고 있는데 고용정보원 자료에 '성희롱성 질문을 받으면 농담으로 받아칠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니 어이가 없다. 나는 여성문제뿐 아니라 차별문제에 관심이 많다. 차별문제를 들여다보면 제도의 문제가 있다. 잘못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다. 성찰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제도와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는 다채로운 자매애와 세대, 성별, 혈연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대로 여성들의 상처 치유를 시도했다. 직접 인용한 페미니즘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여성연대에 버금가는 여성주의를 제시했다. '드라마는 인간이다'라는 소신답게 그는 이번에도 인간의 관계성, '연대'에 주목했다. <꽃보다 아름다워>는 가족, <굿바이 솔로>는 이웃, <디마프>는 친구들의 연대를 다뤘다.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는 동료들의 연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계속 관계성을 역설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걱정이다. 세계적으로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 세대는 가족과 연대했지만, 다음 세대는 연대성이 없다. 이걸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 고민, 성찰, 방향제시 등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상을 받았다.

을 작품 한편에서라도 녹여내려고 한다. 작가가 정치문제를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성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촛불집회가 좋았다. 최근 가장 뜨겁게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느꼈던 곳이다."

젊어 죽어도 남의 것을 베껴쓰지 않으며,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복제하는 것을 되도록 하지 않고, 가짜는 안된다는 글쓰기 원칙을 갖고 있다. 아름다운 대사가 아닌, 마음이 전해지는 일상대화를 바탕으로 쓴 <디마프>가 제일 잘 쓴 거 같으면서 웃었다. 고교시절 Y-틴 활동을 보고 진즉 YWCA를 알게 되었다는 그는 국제구호단체 기부활동 등 사회봉사도 열심히 한다. 작품성 높은 작가답게 다양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데, 사회단체가 주는 상은 그 '따뜻함'이 좋아서 시상식에 꼭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응원을 부탁하니 "마음이 짠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투표는 청춘을 구해내는 일"이라며 대선 투표참여 캠페인에도 발 벗고 나섰던 그는 "여성들은 불합리한 체제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변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고, 단체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지 못하는 여성과 약자들이 있다면 서로 돕고,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나눌 것을 당부했다. 불교 신자인 노희경의 법명은 '금강'이다.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라는 뜻인데, 다음 작품에서 그가 던질 화두가 궁금하다.

# YWCA는 왜 평화순례를 떠나는가

##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한국YWCA 95주년의 주제는 회개, 성찰, 고백이다. YWCA는 창립 95주년부터 100주년까지 비전수립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여성평화비 건립, 2019·2021년 피스보트,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 키워드는 여성과 평화다. 특히 'YWCA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설립 초기 평화를 희구하는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된 YWCA 평화운동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 95주년, 95명 한라산에 오르다

순례는 신앙행위의 하나로 종교 성지(聖地)나 영장(靈場)을 찾아가면서 참배하는 여행, 순례자는 성지(聖地)를 순례하는 사람 또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本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뜻한다. 'YWCA의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명산 등반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대화의 주제를 평화로 정해 평화담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른바 '길 위의 평화학교'다.

YWCA는 1945년 남북 분단 이후부터 지속된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 남단의 명산 제주 한라산부터 북한 양강도(량강도) 삼지연군의 백두산을 잇는 평화순례의 길을 떠난다. 95주년을 맞은 올해 95명의 한라산 등반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명씩 인원을 늘려 100주년에 100명이 백두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평화포럼과 평화등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화통일 감수성과 통일에 대한 열정을 높이기 위한 2017년 평화포럼은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1차는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김귀옥 한성대 교수), 2차는 북한사회의 가정과 연애문화(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연구위원), 3차는 북한의 교육, 아동과 미래(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는 북한 정치와 경제(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5차는 북한, 그리고 한반도 미래(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라는 주제 강연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평화등반은 평화포럼에 참여한 포럼단을 중심으로 일반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는 95명의 평화순례단이 한라산을, 2018년에는 96명이 지리산을, 2019년에는 97명이 속리산을, 2020년에는 98명이 설악산을, 2021년에는 99명이 금강산을 그리고 2022년 YWCA 100주년에는 100명이 백두산을 오르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포럼단'의 역할이다. 포럼단은 북한이탈주민 6명과 5개 지역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된 20명, 대학·청년Y 회원 3명,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연합회 실무활동가 등 33명으로 구성되었다. 포럼단은 포럼을 통해 북한과 북한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5년 동안의 포럼단 활동을 통해 YWCA 통일운동의 방향 제시는 물론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YWCA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           | 주관        | 등반 명산 | 제목                |
|--------------|-----------|-------|-------------------|
| 2017년(95주년)  | 한국YWCA연합회 | 한라산   | 여성, 한라에서 평화를 열다   |
| 2018년(96주년)  | 광주YWCA    | 지리산   | 여성, 지리에서 평화를 외치다  |
| 2019년(97주년)  | 서울YWCA    | 속리산   | 여성, 속리에서 평화를 꿈꾸다  |
| 2020년(98주년)  | 한국YWCA연합회 | 설악산   | 여성, 설악에서 평화를 바라보다 |
| 2021년(99주년)  | 광주YWCA    | 금강산   | 여성, 금강에서 평화를 만나다  |
| 2022년(100주년) | 서울YWCA    | 백두산   | 여성, 백두에서 평화를 만나다  |



강릉YWCA 평화순례 걷기대회 (2012년 7월16일)



서울YWCA 평화걷기대회 (2012년 5월19일)

광주YWCA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광주걷기대회 (2012년 4월28일)

### 90주년부터 시작한 평화순례

YWCA 평화순례의 시작은 창립 90주년 기획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한국YWCA는 평화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등 새로운 평화운동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 전국 회원YWCA와 함께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평화순례를 마련했다. 그해 광주YWCA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광주걷기대회(4.28)를 시작으로 중부지역 위원회 이사연수(5.2), 서울YWCA 평화걷기대회(5.19), 강릉YWCA 걷기대회(7.16), 한·일YWCA협의회(8.24~8.27),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8.24~8.27)로 평화순례를 이어 나갔다.

걷는 순례가 사회운동의 의미를 가지도록 "YWCA는 다르다"는 이유로 가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Peace is our Hope",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등의 슬로건을 내걸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2013년에는 '한국-중국 연변-미국

뉴욕 퀸즈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이 진행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던 시기 한국-중국-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의 백두산 평화기행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민족화해, 평화통일 염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평화순례의 정신을 잇는 95주년 YWCA 평화순례는 단순한 등반 프로그램이 아니다. 95명에서 시작해 100명으로 완성되는 포럼단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길 위의 평화학교'이다. YWCA는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매년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길 위의 평화학교'를 진행해오고 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7-8절)고 말씀하셨다. 2017년 10월 27일로 예정된 한라산 백록담을 향한 YWCA 평화순례, 95명의 YWCA 회원들은 백두를 향해 외칠 것이다. "YWCA는 한반도에서 분단이 사라지게 하고, 통일 세상을 만듭니다.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 전쟁 없는 한반도 위해 여성들 DMZ 걷는다 5월 27일(토) 임진각에서 2017 여성평화걷기 열린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DMZ(비무장 지대) 걷기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5월 27일(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이 평화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 2017 여성평화걷기의 의미는 크다.

또한 남북관계가 단절기를 맞았던 2015년 세계 여성운동가 30명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넘었던 국제여성평화걷기, 그 정신을 이은 2016년 여성평화걷기를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이번 여성평화걷기에는 분단 1, 2, 3, 4세대 여성들과 시민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해외 여성운동가 등 1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체코스는 파주 민간인통제선 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구간을 걷는 6.5km 코스이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4km 거북이코스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평화 플래시몹, 경기여성평화합창단 공연, 함께누리 풍물패 공연, 평화의 춤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여성평화걷기는 여성뿐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 평화를 만드는 힘! 서울YWCA 95주년 시민걷기축제



서울YWCA는 4월 22일(토) 남산 백범광장, 남산순환로에서 '2017 평화순례와 함께하는 서울YWCA 창립 95주년 시민걷기축제'를 진행했다. 서울YWCA 대표적인 행사로 시민이 서로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YWCA 6개 지부(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강남청소년수련관, 성동청소년문화의집)가 연합해 추진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시민걷기축제는 1,2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대와 환경을 넘어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화합과 가족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잊지 말아요, 세월호”

강신혁

인천YWCA 대학·청년Y 회원, 청년기자단 2기



5월 6일(토) 안산YWCA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대학·청년Y 제3차 북부지역협의회 및 회원모임인 '안산에서 만나'에 참여했습니다. 안산YWCA 대학·청년Y가 이날 행사를 주관했는데, 특히 세월호 관련한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압화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잊지 말아요, 세월호'를 세월호 희생자 편다는 학생의 어머니 김미영 선생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한지에 생화를 붙여 압화한 뒤 책갈피나 액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304명의 '꽃'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만은 원하는 꿈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자식 같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항상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고난 날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날, 먼 곳에 와서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저 위에서 보고 있을 다은이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안산 화랑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아이들의 수색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디기에 너무 길고 힘겨운 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도우며 구조를 기다렸던 304명. 그러나 초동대처에 실패한 정부는 결국 그 생명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무책임한 방송

만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억울함으로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였으며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은 세월호 유가족과 바닷속에서 겨우 구조된 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져 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남현철·박영인·조은화·허다운 학생, 단원고 고창석·양승진 선생님, 이영숙씨, 권재근·권혁규 부자. 아홉 분들을 위해 '오래 기다려 온 마음을 멈추지 말자'고 함께 온 친구들과 약속했습니다.

추모 이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담아 만든 작품 전시회 '너희를 담은 시간'을 둘러봤습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이 쓴 수필과 그림들엔 자녀들이 돌아와주기를 기도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의사를 꿈꾸던 다인이에겐 “지금 그곳에서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라고 적은 어머니의 글은 간절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이 마지막 '귀환'을 하는 날, 맘껏 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왜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고 원망이라도 실컷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같이' 추모해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로부터 힘없는 304명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가 꼭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 도봉숲속에서 탈핵을 만나다

공은혜  
대구YWCA 사회개발위원회 위원

대구YWCA 사회개발위원회 단체 카톡방에 '독이 왔다. 2박3일간 서울 도봉숲속에서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가 열린다고 <한국탈핵>,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 등 필독서 2권을 읽고 참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눈에 들어왔다. 사실 20여년 연락이 끊겨 만나지 못했던 대학 친구를 서울에서 만나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했다. 그럼 좋은 기회이니 참석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권유가 들어왔다.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을 재미나게 보던 때라 '도봉숲속'이란 말에 흥미가 조금 생겼다. 휴가, 서울, 도봉숲속, 아카데미 참가를 결정했다. 필독서 2권도 주문했다. 책을 읽으며 원자력발전과 핵발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잔혹함, 왜 탈핵 캠페인을 하고 왜 탈핵을 해야 하는지를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4월 13일(목)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초행길이라 일찍 출발했더니 제일 먼저 도착했다.

## 10만년간 사라지지 않는 재앙

제1강은 'YWCA는 왜 탈핵운동을 하나요?'.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의 강의였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앙은 더 크게 계속되고 있다. 오염을 제거한 포대들이 즐비한 후쿠시마 마을에는 10만년간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폐기물이 쌓여 있다. 지금도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선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바다 속 거대 포유류들의 변형된 사체가 떠오르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피폭된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58배 넘게 많으며 피부염, 백혈병 등 건강 피해는 물론 고립, 차별, 분열의 정신적 피해까지 받고 있다.

제2강은 핵발전 위험에 대한 김익중 동국대 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의 열강으로 이어졌다.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김 교수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에 오염된 장갑이나 옷 등 원전에서 사용한 물건) 방사성폐기물 현장에 참여하며 탈핵운동가로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인 비등형원자로(직접방식)와 한국형 원전인 가압경수로(간접방식) 원전을 소개하며 100톤의 우라늄이 원료가 되어 4년 6개월간 멈추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열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다. 4년 6개월간 사용된 사용후폐기물(고준위폐기물)은 물속에서 10년간 식힌다. 그래도 다 식지 않고 멈추지 않는 방사성 오염물질은 10만년이 지나도록 밀폐보관해야 한다.

나는 의문이 생겼다. 4년 6개월의 열에너지를 위해 10만년이란 세월을 철저히 밀폐보관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쏟아내는 핵발전소를 왜 계속 가동해야 하는가? 일반인 수준인 나조차도 바로 의문을 갖는데 그것을 개발, 사용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원전 관계자들은 왜 계속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걸까? 그것은 제4강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의 강의로 알 수 있었다.

김익중 교수는 과거 핵사고를 소개했다. 미국 쓰리마일(1979. 3.28) 구소련 체르노빌(1986. 4.26) 일본 후쿠시마(2011. 3.11) 등 3곳의 핵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원전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한국 핵 상황과 탈핵운동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강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경우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고, 노후한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며 계속가동을 시도하고 있어 사고발생 확률이 높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 등은 탈핵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사고가 나기 전에 탈핵을 선언해야 한다. 앞으로 50년의 시간을 두고 노후되기 전에 핵발전소를 중단한다, 수명연장을 안 한다,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다, 전기에너지를 절약한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도 탈핵을 이룰 수 있다.

## 탈핵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싶다

제3강은 방사능이 환경, 인체, 먹거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영수 한림대 교수(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가 강의했다. 1msv/y는 1년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한계량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으로 1년간 방사선에 노출되는 최고 상한선을 1msv(밀리시버트)로 정한 것이다. 1msv/y는 안전기준이 아니라 관리기준이다. 우리가 검진받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0.1msv에 노출된다. 1년에 10번의 엑스레이를 찍을 경우 1년 기준치만큼 노출되는 것이다. CT를 촬영할 경우 6.9msv, 저선량흉부CT 촬영은 2.0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제4강에서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은 생명의 바람, 살림의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핵발전은 죽음의 에너지며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체르노빌 피폭 후손의 일그러진 모습은 오랫동안 잔영으로 남아 왜 우리가 탈핵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제5강 한국 핵 상황과 탈핵운동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YWCA탈핵생명위원회 위원)의 강의였다. 핵발전소 도입을 시작한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핵발전 현황은 물론 핵발전소 수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었다. 제6강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핵발전소를 중단할 경우 대체해야 할 에너지인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제7강에서는 김영자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탈핵생명위원회 위원)의 지도로 탈핵씨앗 강사로 강의할 경우를 가정해 탈핵교안 만드는 법과 지도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조별로 직접 교안을 만들어보았다.

'도봉숲속에서 가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한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는 방사능에 오염될 확률이 높은 먹거리를 삼가는 정도의 소양밖에 없던 내게 '탈핵'의 진실을 만나게 해주었다. 이제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자료가 나오면 스크랩해서 꼼꼼히 읽어본다. 지인들에게 방사선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주기도 한다. 이제껏 탈핵운동을 해온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나도 도봉숲속에서 탈핵을 만났으니 씨앗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지금껏 공짜로 누린 탈핵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씨앗으로 싹을 틔우고 싶다. 

# 여성의 눈으로 성서 '다시' 읽자

김경민  
청주YWCA 사회선교위원회 팀장

## 성서 속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과거 흔하게 쓰였던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아직도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상위의 존재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도 존재한다면 어떻게?

여성혐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특히 기독교 여성이 교회 안에서 겪는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남성들은 교회 내 성차별에 무감각하거나 현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독교 여성들은 교회 안팎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종하거나 분노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초기 한국교회 여성들은 복종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봉건 질서에서도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히는 주체였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교회는 기독교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온 것일까', '현재 기독교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과 모습을 가지며 성경은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하여 4월 27일 (목) 제3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성서 속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가부장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문제, 성차별과 싸워온 한국교회 여성들의 역사를 분석한 최만자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의 강의를 들었다.

##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성서 속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성서는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기록이 모인 책이다. 이는 당시 역사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구약시대에는 가부장제 사회로 여성 억압적 요소들이 많았다. 창세기 2~3장은 부정적인 여성관을 갖고 남녀 관계를 설정한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인간 타락과 그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정립을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고 지배당하며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악한 존재로 해석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기독교 내 여

성혐오 사상의 근원이 된다. 이렇듯 여성은 대체로 열등한 존재, 아이 낳는 도구, 성적 대상, 성폭력의 희생자 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신약성서는 가부장적 요소가 약화된 시대로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과 함께한 많은 여인들을 이야기한다. 우물가에 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예수는 여성들을 존중하며 진지한 신학적 논쟁을 펼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한다. 하지만 바울 후기와 특히 후기 목회서신은 여성을 남성 중심적 사상에 종속되고 억압받는 존재로 취급한다.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억압 사상이 여자가 원죄의 근원이라는 관념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고, 13~16세기 마녀사냥으로 정점을 찍는다. 성서의 이원론적 사고를 근거로 여성을 '메시아를 출산한 성모 마리아'와 '원죄를 가져온 하와'로 이분화했다. 결국 남성을 '영적인 존재', 여성을 '육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여성 자체를 '영이 없는 더러운 존재', '남성이 잘못 태어난 형태', '사악한 존재'로 정의하게 이른다.

여성억압의 역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성서 속 이야기가 남성에게 의해 전승되고 편집되면서 그들의 눈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정의가 남성의 관점으로 이뤄졌다. 최만자 위원은 중세시대 여성혐오 정점의 이면에는 독신남성 문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독신남성들이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여성을 '결혼하지 않은 여성(성녀 聖女)', '일반 여성(창녀 娼女)'으로 이분화해 여성을 '유혹자', '사악한 자'로 정의했다. 최만자 위원은 이제 남성에게 의해서가 아닌 여성들이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방법론'을 통해 성경의 여성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모든 '약자'의 경험으로 읽자


그렇다면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성신학'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에게 의해 쓰였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한계가 있고 남성에게 의한 가부장적 산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여성신학을 갖고 '의심의 해석학'을 통해 성서로부터 이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를 찾고 '선포의 해석학'으로 솔직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회상의 해석학'으로 성서에서 하지 않았던 여성의 이야기, 특히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침묵하는 성서의 여성들을 '창조적 상상력의 해석학'으로 성경 속 여성의 입장을 상상하며 읽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여성들의 삶이 다양하듯 성서 속 여성들의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면 가려진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1장은 여성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 표현한다. 흔히 모세의 누이로 알려진 미리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였다.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이었으며 갈라디아서 3장은 초기 기독교가 남녀 평등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해석함으로써 역사 속에 잊혀진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다.

성서를 문자로만 해석한다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성서문자주의 극복'이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남성에게 의해 읽혀지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산물'이며 '사람에 의해 쓰인 문화적, 사회적 한계'를 갖는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성, 남성, 주인, 종 모두에게 동등하다.

우리는 어떤 눈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자의 경험으로 읽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했는지 밝히고, 성경의 여성해방적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은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이다. 오늘날 여전히 여성을 '개념녀', '김치녀'로 지칭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독교 여성의 역할을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여성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최만자 위원이 '성서 속 여성들의 모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천장화. 성경에 나오는 유혹받은 아담과 이브를 그렸다.

# “그때 우리는 산에 있었다” 광주YWCA 두레산악회 30년

“그저 산이 좋아모였던” 사람들이 있다. 1986년 10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360명의 회원을 가진 광주지역 최대산악회로 성장한 광주YWCA 두레산악회. 한때는 9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작은 회원동아리로 출발했지만, 광주 최초 여성산악회로 대한산악연맹에 가입된 전문 산악회로 발전했다. 두레산악회가 생긴 이래 광주지역엔 10여개의 여성산악회가 만들어졌다. 올해 3월 창립 31년을 맞았으며,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들이 1기부터 8기까지 활동하고 있다.

## 문턱 높은 산악회, 교육은 필수

초기엔 청바지를 입고 등산하거나 예쁜 블라우스 차림인 회원들도 많았다. 등산하기 좋은 복장을 하라고 해도 ‘우이독경’이었다. 그래서 ‘단복’(단체복)이 등장했다. 오늘날 두레산악회를 있게 한 비결은 무엇보다 교육에 있다. 광주전남산악연맹 등산학교 강사였던 임형철 선생을 만나면서 두레산악회는 크게 발전했다.

그의 지도로 등산의 목적, 의의, 산행예절 등 기초를 다졌다. 자연과 교감하는 등산에서 산에 대한 예의와 도덕은 기본이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도 했다. YWCA 정신과 규칙까지 교육받는다. ‘두레산악회는 문턱이 높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명품 산악회’로 불리는 이유다. 해마다 대원을 모집하는데, 광주YWCA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양교육부터 기초 암벽등반, 설상산행 등을 습득해야 인준식이 이뤄진다.

정예대 교육은 더 전문적이다. 등산학교에 입교해 등산식량, 장비, 등산의학, 산악기상, 독도법, 응급처치법에 강도 높은 암벽훈련과 빙벽훈련까지 받는다. 이런 전문훈련을 통해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국제산악마라톤대회 등에서 수차례 상을 받았다. 국내 명산뿐 아니라 네팔 히말라야, 말레이시아 마운틴 키나발루, 일본 북알프스 오쿠호다카다케, 캐나다 록키산맥 등 19번이나 해외 원정등반을 다녀왔다. 여성산악회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 시등식은 언제나 무등산

뭐니 뭐니 해도 두레산악회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산은 무등산이다. 새해를 맞으면 언제나 그해 시등식도 무등산 장불재에서 한다. 매주 1~4기는 화요일, 5~8기는 목요일에 광주 무등산을 오른다.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산행을 가고, 1년에 한 번 전체 기수가 모여 등반한다. 올해는 국내를 중심으로 등산을 하고 있다.

잇을 수 없는 산행으로 1994년 7월 백두산 원정을 끝낸다. 하루에 두 번이나 백두산에 올랐는데, 지프차를 타고 기상관

## 편집실

측소로 가서 천문봉에 오른 뒤 내려와 장백폭포를 경유해 다시 천지에 올랐다. 윤동주 시인의 모교 용정중학교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북경YWCA에 소수민족을 위한 생필품을 기부했다. 25년간 활동하며 5기 1~2대 대장을 지낸 79세 송춘이 대원은 “천지에 도착해 무등산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백두산 흙과 물에 섞고 다함께 기도했는데 절로 눈물이 났다”고 당시 감격을 전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녀온 금강산 세존봉은 여성산악회로서는 최초였다. 240명의 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10분 만에 전원 배에 탔던 한라산 눈꽃축제. 1993년부터 이어진 부산YWCA 여울산악회와의 영호남 친선등반도 잊기 어렵다.

## 가장 소중한 추억은 ‘사람’

가장 소중한 추억은 사람이다. 두레산악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수많은 대장들. 그중 고인이 된 제1대 대장이자 큰 언니였던 ‘이무선 대장’은 대원들 마음에 별처럼 남아있다. 다람쥐처럼 가벼운 몸으로 날렵하게 체조를 지도하고, 산을 잘 탔던 분이다. 1992년 첫 해외원정인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등반을 진두지휘한 이길우 대장의 열정과 추진력도 빼놓을 수 없다. 남다른 지도력으로 두레산악회를 키운 김영희, 정회금, 서동신 대장과 지렛대가 되어준 임형철 지도강사의 헌신도 간과할 수 없다.

두레산악회는 봄가을로 야유회를 간다. 5기는 봄에 회갑, 칠순잔치를 하고 가을에 2박3일 여행을 한다. 지난해엔 9명이 회갑, 4명이 칠순을 맞아 등반 뒤 잔치를 했다. 회원들은 세월을 함께한 산악회 일원이 가족과 같다. 4월 27일(목) 서울 도봉산 등반에서 만난 5기 회원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고 물으니 ‘맛있는 밥’이라면서 어린애마냥 깔깔 웃었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퍼놓은 도시락 반찬은 그야말로 ‘재래식’ 한식뷔페를 연상하게 한다. 가장 맛있는 밥을 나눠먹는 사이, 식구이자 가족인 것이다.

두레산악회는 광주YWCA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레장학금을 조성해 해마다 광주YWCA 아동보



2017년 4월 27일 서울 도봉산 등반에 나선 두레산악회

호시설인 ‘성빈여사’에 기부한다. 소녀가장돕기,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봉사와 목욕봉사, 장애인 등반 도우미역할은 물론이고 광주YWCA 봄가을 큰장날엔 김밥, 참기름 등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2008년엔 무등산에서 미국최고기재협상축구 및 검역주권회복을 위한 깃발운동을 했고, 2014년부터는 무등산 입구에서 정기적으로 탈핵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안전지역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에 적극 나섰으며, 자연보호 캠페인과 온림온천지구 반대 침묵시위, 장애인을 위한 마라톤대회, 환경문제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숙희 총대장은 “산행만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다른 산악회와 행보를 달리하며 YWCA 역사와 함께한 두레산악회는 그 활동이 널리 알려지며 위상을 높였다. 2005년 20년사를 정리한 회고집 <그때 우리는 산에 있었다> 1편에 이어 지난해 30년사를 정리한 <그때 우리는 산에 있었다> 2편을 펴냈다. 2018년엔 한국YWCA가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YWCA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의 지리산 등반포럼을 주관할 예정이다.

산행은 인생과 닮아 있다고 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행복한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고 걸어오만 하는 게 삶이기 때문이다. ‘협심’이 모토인 두레산악회, 그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지리산 평화순례’의 길이 벌써부터 설렌다.



2016년 두레산악회 30주년을 맞아 중국 증경으로 해외원정 등반을 떠났다.

# 증모운동은 하나님과의 약속

편집실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강정희 인천YWCA 증경회장을 남상인 인천YWCA 사무총장이 만났다.



강정희 인천YWCA 증경회장 약력

- 1985~2007 인천YWCA 이사
- 1989~1990 인천YWCA 회계이사
- 1991~1992 인천YWCA 회원위원장
- 1993~1994 인천YWCA 부회장
- 1995~1996 인천YWCA 10대 회장
- 현재 인천YWCA 명예이사  
신현감리교회 원로장로
- 1997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 1999 인천시장상(여성지도자상) 수상
- 2016 한국YWCA연합회 30년 봉사상 수상

## 기도와 열정으로 재정을 일으키다

### 31년간 YWCA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원증모운동이지요. 회원증모운동의 시작은 운명적으로 다가왔어요. 1995년 인천YWCA 회장이 되고 신입회장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강릉YWCA 회장이 자신은 1년에 100명씩 회원 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인천YWCA는 이사 한 명이 회원증모를 10명도 못 했거든요. 가족을 회원으로 등록할 정도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연합회 이진용 선생(현재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 회원을 100명 증모할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 ‘아, 이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슴이 떨렸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을 채우고도 남은 성과를 냈지요.”

### 어려웠던 인천YWCA의 재정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회원이야말로 인천YWCA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회원이 곧 생명이라고 믿어 회원증모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도 같이 일어났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지역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아침 6시마다 전화를 걸어 평생회원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화하기 전 ‘하나님, 누구한테 요청을 하든지 거절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거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웃음). 항상 회원증모 카드, YWCA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천YWCA를 소개했어요. 한해 회원증모로 8,700만원을 모으기도 했어요. 당시 인천YWCA에 빚이 2억 4천만원이 있었는데 회장으로 있으면서 2억원을 갚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장 23절)’는 말씀을 떠올리며 일한 결과입니다.”



199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YWCA 창립10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한 강정희 증경회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인천YWCA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어머니교실을 운영해왔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 창작 뮤지컬 ‘솔티와 함께’ 공연은 시민단체가 문화공연을 주최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시절 획기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재정마련과 관련된 공연이었지요?

“1995년 인천YWCA에서 ‘솔티와 함께’ 공연을 기획했어요. 재정적인 유익을 위해 시작했으나 공연 자체가 복음적인 내용이고 청소년문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니까요, 두루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당시 사무총장은 대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것도 믿음과 기도로 추진했어요. 지역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려했지요. 놀랍게도 인천종합문화에 솔티관 대공연장에 앉을 자리가 없어 계단까지 앉았어요. 3일간 공연을 하면서 수 천만 원의 수익금을 거두었어요. 내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천YWCA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비결은 기도와 열정입니다. 기도한대로 일하는 겁니다.”

### 청소년운동을 적극 펼쳤으면

### 실무활동가들은 회장님을 ‘카리스마 지도력’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증경회장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동력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1) 솔티(Psalty)는 성경 구약의 ‘시편’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온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는 책의 이름이다. MBC 어린이합창단 출신 기독교가정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처음 공연을 소개해 알려졌다. 1980년 무대에 선보인 뒤 기독교판 ‘뽀뽀뽀’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믿음입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믿음이겠지요. 저는 많은 능력을 가졌거나 물질이 풍요한 가운데 회장직을 수행한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가진 자는 할 수 있다. 이 일이 하나님 뜻이면 꼭 이루어진다.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그런 도전 정신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했어요.”

### 올해 인천YWCA는 창립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YWCA가 어떤 역할을 하며 발전시킬 소망하는지요?

“인천YWCA 비전과 목적대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습니다. 인천YWCA에 노인기관, 요양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복지관, 다문화이주여성을 위한 센터 등이 있는데 청소년 기관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YWCA 정신을 살려 청소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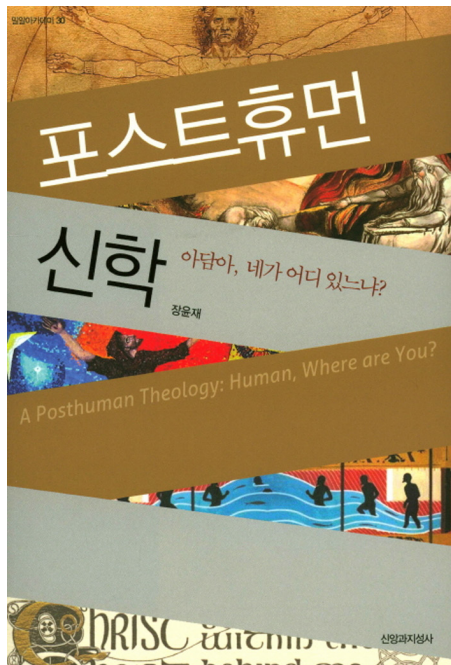
### 끝으로 YWCA 후배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 됩니다. YWCA를 통해서 인천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기 바랍니다.”

# 포스트휴먼 신학,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유미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연구실장



포스트휴먼 신학

장윤재 지음 / 신앙과 지성사 / 15,000원

근대문명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문명은 쇠퇴하고,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 곧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기적처럼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도 여러 위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대적 인간은, 우리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은 생명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고,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참으로 '불편한 진실'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핵 발전으로 세상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기후가 붕괴되고, 미세먼지로 숨 쉬기 힘든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를 뒤덮고, 매년 가축들이 고통 중에 산 채로 매장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의 침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는 산과 강이 케이블카와 댐 건설 등으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소리에 '애정 어린' 경청을 하게 하는 책,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가 쓴 <포스트휴먼 신학>(신앙과 지성사)입니다.

## 지구의 소리에 경청하게 하는 책

단숨에 읽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핵 발전 사고, 대규모 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쓴 글이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무

엇보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성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 물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은 물론, '동물과 육식', '물과 그 위기', '핵 없는 세상',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는 생태신학적 성찰의 주제였습니다.

장 교수는 책을 통해 우리도 성찰하고 반응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의 절망적 상황은 인간 중심주의가 낳은 결과다. 이제 '포스트휴먼 신학'을 해야 한다"라며, 대개 '포스트휴먼' 하면 현존하는 인류 다음에 나타날 신인류를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늙지 않으며 원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진 인간(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전현식 소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신학자 글을 담은 <포스트휴먼 시대, 생명-신학-교회를 돌아보다>라는 책을 곧 출간합니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 교수가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연의 신처럼 근엄해온 인간인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을 넘어서는 '포스트휴먼'의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파괴적이었음을 반성하고,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겸손해져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을 말합니다. 장 교수는 묻습니다. "아담아, 사람이,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라고 청하는 성찰적 질문입니다.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속출하는 창조세계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살피게 합니다.


지구의 상황을 보면 다소 늦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서투른 답변을 내놓을 것은 아닙니다. 더 진지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각자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받아 깊이 묵상하고 명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 개념을 뛰어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포스트휴먼>의 저자 로지 브라이도티가 말하는 대로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 더 나아가서는 '강물-되기' '나무-되기' '플라스틱-되기' '전기-되기' 등을 해보면 각자의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깨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은 인간으로, 자연은 자연으로.

## 낮은 신학과 신앙의 허울부터 벗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무게가 험겁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 세월의 무게라기보다 다시 개혁되어야 할 낮은 것들이 쌓여서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장 교수가 제안하듯이 '포스트휴먼 신학', 곧 '인간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품는' 신학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나빠질 것만 남았다는 것은 오히려 해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자리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그 위에서 지금의 절절한 위기(危機)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위험(危險)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기초한 새로운 기회(機會)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위기의 지구'에서 또 다시 우리 인간만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지구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주어지는 복된 기회를 말합니다.

우선은 낮은 신학과 신앙의 허울을 벗어내고, 생명의 귀환에 대한 존중, 생태계의 건강,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회와 세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했던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생각을 돌이켜 요셉처럼 지혜롭게 행하기를 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지구는 계속 나에게 필요할 것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낮의 태양은 밝게 비출 것이고, 밤의 달도 자신의 빛을 내어줄 것입니다. 땅도 필요로 하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나 한 사람과 우리 모두의 깨어남을 위해서. 

5월 월례아침기도회



5월 1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의장인 장상 목사의 설교로 5월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장 목사는 '여리고로 오소서' (마가복음 10장 46~52절)라는 제목으로 여리고성 시각장애인 바디매오가 예수에 대한 큰 믿음으로 결국 눈을 뜨게 된 것을 강조했다. 이어 100주년을 바라보는 YWCA가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열망과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바디매오와 함께한 것처럼 평화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와 YWCA 운동을 위해 기도했다.

2017 YWCA 회장단 연수



2017 YWCA 회장단 연수가 4월 20일(목)~21일(금) 연합회와 서울YWCA에서 진행됐다. 전국 회원YWCA 회장단 84명이 참석해 MBTI(마이애스브릭스 성격유형 지표) 검사를 통해 각자의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고, YWCA

회장단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세계자원봉사협회의 이사인 박윤애 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의 '자원봉사의 세계적 흐름을 통해서 본 자발적 헌신과 시민됨'이라는 특강을 듣고 YWCA 초기정신인 자발적 헌신의 뜻을 되새겼다.

2017 YWCA 신입이사 교육

2017 YWCA 신입이사 교육이 5월 25일(목)~26일(금) YWCA 버들캠핑장에서 열린다. 전국 회원YWCA 3년 이내 신입이사 40여명이 참석, 오늘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YWCA 정체성과 비전, 이사의 역할을 공유한다.

'길위의 평화학교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2차 포럼



한국YWCA 95주년 기념사업인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2차포럼이 5월 15일(월) 광주YWCA에서 열렸다.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의 '북한 사회의 가점과 연애문화' 강의를 통해 북한 여성들 삶에서 북한 사회 현재와 이후 변화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했다.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



연합회와 여성평화건기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이 5월 24일(수)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2015 Women-CrossDMZ(국제여성평화건기) 대표 4명과 평화를 바라는 10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의 지속성, 이를 위한 여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논의했다.

제4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제4차 YWCA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이 4월 2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성서 속 여성들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만자(여성신학자,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모임에는 대학·청년Y 회원과 회원YWCA, 연합회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사회 여성혐오가 어떤 '성서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와 한편으로 여성들에게 어떤 '해방적 근거'를 주는가를 살펴보고 열린 토론을 펼쳤다. 제5차 모임은 5월 25일(목) 오후2시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된다.

제2차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워크숍

지난 1월에 이어 2차 YWCA여성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4월 18일(화) 충주YWCA에서 열렸다. 11개 지역 시설에서 모인 이번 워크숍은 19대 대선 YWCA 여성폭력 관련 의제를 살펴보고 가정폭력방지 및 처벌법 제정 20년을 맞아 여성계 현안인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양성평등정책포럼 내용을 공유했다. 법무부의 스마일센터 운영과 각 지역의 긴급보호처 운영 등 지역별 상담소 현장 경험을 나누고 검찰의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존폐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청년기자단 5월 모임



청년기자단 2기 Y-ON 제5차 정기모임이 5월 13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4월 활동을 나누고, 참신한 온라인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SBS <스브스뉴스> 권영인 팀장의 '모

바일 콘텐츠의 오늘과 내일' 특강으로 청년기자단의 모바일 콘텐츠 기획능력을 길렀다.

대학·청년Y 북부지역협의회



대학·청년Y 북부지역협의회와 북부지역 회원모임이 안산에서 5월 6일(토) 열렸다. 올해 대학·청년Y 전국운동 주제인 '지역사회와 청년'을 살린 '지역탐방'을 기획한 북부지역협의회는 이날 안산YWCA 청년회원 주관으로 '안산에서 만나'를 진행했다. 특히 4.16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세월호 전시관을 찾은 청년들은 같은 시대 청년으로서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학·청년위원회 대선정책 스터디모임



YWCA 청년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부터 선거일 전까지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진행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키워드

로 일자리, 미래 환경과 안전, 정치참여를 선정한 뒤 5개 원내정당 대선후보의 10대 공약 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분석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책 키워드 팸플렛'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홍보했다.

'은학의 집' 개관 17주년 예배



YWCA복지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은학의 집'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5월 15일(월)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번 기념예배는 은학의집 운영위원과 직원들의 특송, 조은영 운영위원의 기도, 김종필 이우교회 목사의 설교, 정운형 한양대 대학·청년Y 회원의 국악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은학의 집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YWCA가 2000년 5월 개관했다.

지속가능한 금융교육을 위한 씽크머니 간담회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는 YWCA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씽크머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연합회는 4월 28일(금)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한 씽크머니 간담회'를 열고, 2016년 프

로그래 평가연구 보고를 통해 씽크머니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회원YWCA 씽크머니 담당자, 씽크머니 교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씨티은행 씽크머니 금융강사교육



2017년 제1차 한국씨티은행 씽크머니 금융강사교육이 5월 1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16명이 강사로서 소명의식을 키우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씽크머니 금융교육 강사로 파견된다.

YWCA-서울환경영화제

탈핵영화 상영 환경재단 주관의 서울환경영화제와 YWCA가 탈핵영화 공동상영으로 탈



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YWCA는 5월 19일(금) 이화여대 아트 하우스 모모에서 진행 중인 서울환경영화제 개봉작 중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 상영을 주관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위치한 이타테현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겪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는 핵사고의 참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연합회와 회원YWCA 위원, 실무활동가,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

YWCA는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10만 서명운동'으로 고리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6월 18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YWCA 전국행동의 날'을 개

최한다. 이를 위해 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는 6월 7일(수) 오후2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일대에서 YWCA 탈핵문화제 '잘가라, 신고리 5·6호기!'를 열 계획이다.

'1922 장학금' 모금 계속

창립 95주년을 맞아 1922년 YWCA 설립정신을 기념하고자 신설한 '1922 장학금' 모금이 계속된다. 2017년 모금 목표액은 2,600만원이다. '1922 장학금'은 1,922명으로부터 연 1만원씩 후원받아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Y-틴과 대학·청년Y 중앙임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922 장학금'에 참여하려면 전화 02-774-9707(한국YWCA 연합회 장학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계좌는 농협 301-1922-0000-31(예금주 '한국YWCA연합회')이다.

동정

이귀혜 연합회 Y-틴위원회 위원  
통영REC 세자트리슬 사무국장 취임 (2017.4)

(2017. 4. 1~4.3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 구분                | 기부자명단   | 금액        |
|-------------------|---|-----------|
| CMS기부 (4. 1~4.30) | 강승아, 강현중, 고서영, 고예린,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권순복,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임희, 박진화, 박호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정미, 백혜진,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인숙, 심선미,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신,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정분,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희,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찬진, 이현자, 이희숙, 이희정, 임강숙, 임진영, 임함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채정희, 최수나, 최지영,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 1,903,000 |
| 회원YWCA            | 동해YWCA, 청주YWCA  | 76,500    |
| 협력교회              |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에스더목장, 약전명강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 260,000   |
| 기관, 단체            | NH농협은행(명동지점), 르뱅(명동성당점), 마포구청 선교사무회, 명성야구, 알파문구(명동성당점), 에세레 젤라도(명동성당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 123,820   |
| 합계                |   | 2,363,320 |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다른 시선, 다른 목소리'



5월 11일(목) '다른 시선, 다른 목소리-대립에서 공존으로'라는 제목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다양한 성차별을 겪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특강과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 잊혀진 여성들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여성역사기행으로 이뤄진다. 고양시 성인지 예산제도를 모니터링해 지역 공무원, 지방의회와 공유하는 발표회도 연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아나바다 '나눔의 장터'



4월 27일(목) 남양주시 도심역 광장에서 아나바다 '나눔의 장터'를 열어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판매를 진행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YWCA 정책요구서 서명과 회원증도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몸살림 강좌 '행복한 너니들이'



부천YWCA는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굳어 있는 몸을 살리는 몸살림 강좌를 열었다. 4월 19일(수)부터 시작한 이번 강좌는 조합원들이 돌봄노동으로 생긴 근육통을 몸살림운동을 통해 풀고,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나간다. 앞으로 남은 4회 강좌에서는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세계도 만들 예정이다.

성남YWCA

김자혜 간사

사랑나눔 일일카페



성남YWCA는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봉사자, 회원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3일(목) 하대원교회 글로리어스 카페에서 '성남YWCA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일일카페'를 열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마음을 나누며 마련된 이날 후원금은 성남YWCA 활동에 쓰인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히포시(HeForShe) 캠페인

지역축제에서 히포시(HeForShe)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4월 28일(금) 행궁동에서 열린 제9회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에서 수원YWCA는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한 세상' 희망나무 꾸미기, 생활재 나누기 등을 벌이며 남성들이 여성 운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수원YWCA는 올해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평등운동으로 히포시 캠페인을 적극 펼쳐오고 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월드페스티벌과 이주여성 채용박람회**



안산YWCA가 운영하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 22일(토) 앞마당에서 '월드페스티벌&키다리마켓'을 열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별 음식, 문화체험, 전통춤 공연, 미술공연, 나눔장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채용박람회를 열고 구직 이주여성들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하루차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루차집 '행복나눔 사랑 한스



폰'을 4월 25일(화) 스칼라티움 안양 평촌점에서 열었다. 행사장에서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캠페인과 함께 미니 바자회도 진행되었다. 이날 수익금은 전액 가정폭력 피해자 후원금으로 쓰인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대학·청년Y 인준식**



5월 11일(목) 거제YWCA 대학·청년Y 인준식이 거제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거제대 YWCA 동아리 회원 20명과 양승주 지도교수가 함께한 가운데 YWCA 소개와 대학·청년Y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가야문화축제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4월 11일(화) 김해YWCA 강당에서 어린이 동화구연대회를 열었다. 어린이와 학부모 100여명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또래와의 교류보다 사이버 공간에 친숙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따뜻한 인간성을 전달하고자 열렸다. 유치부 배수아, 초등부 박혜민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94주년 창립기념 홈커밍데이**



4월 18일(화) 창립기념 예배와 함께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대구YWCA 실무활동가 밴드 'Y.B(YWCA밴드)'가 축하공연을 하고, 역사특강을 통해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YWCA 100주년을 바라보며 새 역사를 가꿔나갈 것을 다짐했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대학·청년Y, Y-틴 인준식**



마산YWCA는 4월 1일(토) 대학·청년Y와 Y-틴 인준식을 열었다. 경남대학교 '터울거리' 대학·청년Y와 마산제일여고 '시나브로' Y-틴 회원 40명이 참석했다. 2017년 한해 중점과제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시나브로' Y-틴 회원 40명이 참석했다. 2017년 한해 중점과제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대선후보 탈핵정책 '10인회의'**



4월 26일(수) 대선 탈핵정책 분석을 위한 '10인회의'를 열고, 후보자별 탈핵공약을 검토했다. 부산YWCA는 '탈핵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및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전면 재수립'이란 YWCA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각 후보에게 제안했다.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와 협치를 통해 구체적인 탈핵정책과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사천YWCA는 4월 18일(화) 강당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회원증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YWCA 운동에 참여할 회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화장이·취임식**

양산YWCA는 4월 7일(금)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화장이·



취임식 행사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장을 역임한 도말순 전 회장은 “힘든 여건에서도 회원들의 소명의식과 참여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표했다. 허영미 신임회장은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 폭력을 넘어 존중하는 세상, 불안을 넘어 안전한 세상을 일구는 생명 사회를 소망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대중교통 그린캠페인**



울산YWCA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한 ‘대중교통 그린캠페인, 1인1플랜트’를 4월 22일(토) 롯데호텔 앞에서 진행했다. 지구온도가 올랐을 때 현상과 이를 낮추는 노력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고, ‘1인1플랜트(식물)’ 캠페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육이 화분을 나누어주었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탈핵진주시민행동’ 창립**

진주YWCA는 4월 21일(금) 진주아이쿱생협에서 9개 지역단체와 함께 ‘탈핵진주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참가단체 대표



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창립선언문을 통해 “진주에서 멀지않은 월성과 고리지역은 고도위험지역이자 5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적인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라면서 “핵없는 안전한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진주에서도 힘을 모으고 연대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창원YWCA** 이아름 간사

**대학·청년Y, Y-틴, 키다리학교 인준식**



YWCA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Y+아이디어’라는 뜻의 동아리 ‘Y디어’로 첫 출발을 하는 대학·청년Y 인준식이 4월 12일(수) 창원YWCA에서 열렸다. 12명의 대학생 회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4월 29일(토)에는 36명의 청소년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Y-틴, 키다리학교 인준식이 진행되었다. 창원YWCA 청소년, 청년운동에 더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포항YWCA는 4월 26일(수) 필로스호텔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등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배영자 대구YWCA 중경회장의 특강을 통해 회원증모를 의미를 새겼고, 지역사회에서 YWCA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YWCA** 이정숙 부장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통영YWCA가 45명의 이사와 실무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0일(월)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회원증모를 주제로 장기자랑을 펼치면서 회원증모 동기부여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부활란 나누기**



강릉YWCA 홍보출판위원회 이사, 위원들과 실무활동가들은 부활절을 맞아 독거어르신 1,050명에게 예쁘게 포장한 달걀(부활란)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축하했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동해YWCA는 4월 17일(월) 본관 교육장에서 2017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위원회별로 조를 나누어 목표를 정하고, 신규회원 확보와 함께 회원재가입운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직장인 금요일예배**



서울YWCA는 부활절을 맞아 4월 21일(금) 서울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음악공연을 결합한 거리에베로 ‘직장인 금요일예배’를 진행했다. CCM그룹 ‘LAST’가 따뜻하면서도 힘찬 노래로 부활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직장인 금요일예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낮12시마다 서울YWCA 회관 1층 마루홀에서 ‘영화로 드리는 예배’로 열린다.

속초YWCA

정인숙 부장

‘복지재정’ 실무교육



속초YWCA는 4월 25일(화) 2층 세미나실에서 이승우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계장을 초청해 ‘복지재정 바로 알고 쓰기’라는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실무활동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알아야 할 회계지식과 용도에 맞게 복지재정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인천YWCA

한혜선 부장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인천YWCA는 4월 15일(토)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Y-틴, 대학·청년Y 인준식을 열었다. 센터와 25개 학교 Y-틴에 소속된 350여명의 학생과 지도교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인준장 수여, 지도교사 임명장 전달, 뱃지 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 Y-틴 중점운동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알리기를 내용으로 한 백석고등학교 학생들의 플래시몹 특별공연이 큰 호응을 받으며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더욱 높였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유권자선언 캠페인



춘천YWCA는 4월 26일(수) 춘천 명동에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YWCA 유권자선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희망세상을 만드는 YWCA 유권자 선언문’을 나눠주고,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모습을 직접 작성했다. 연령대별 사전투표 참여율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이사·직원 연수



광양YWCA는 4월 10일(월)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을 초청해 YWCA 목적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이사, 실무활동가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일교회 코이노니아실에서 열렸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창립95주년 기념음악회

광주YWCA는 창립 95주년을 맞아 4월 27(목) 오후7시 빛고



을 문화회관에서 광주YWCA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가족이라는 이름’을 열었다. 34명의 단원들은 송태왕 지휘자를 중심으로 성가곡, 애창곡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으며, 모노드라마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동을 더했다. 1975년 창단된 광주YWCA합창단(단장 임정란)은 정기연주회, 교회순방과 종교인음악축제, 여성합창제 참여를 비롯해 해외공연 등으로 이웃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Y-틴 인준식, ‘고의순나눔기금’ 전달식



남원YWCA는 4월 15일(토)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김현배 서남교회 전도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설교하고, 2016년 Y-틴 활동영상 상영에 이어 ‘고의순나눔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고의순나눔기금’은 한국YWCA연합회에서 30여년 헌신하다 지난해 별세한故 고의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가족이 기부한 청소년장학금이다. 올해 남원YWCA Y-틴 회원 2명을 포함해 3명의 학생에게 수여된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제주여성멤버십 기본교육 수료식



4월 28일(수) 서귀포YWCA 회관에서 2017년 제1기 제주여성멤버십 기본교육 수료식이 열렸다. 지역변화를 이끌어갈 생활속 여성리더 양성과 여성들이 제주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월 31일 개강한 이번 교육은 26명이 수료했다. 기본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은 5월에 진행되는 심화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순천YWCA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강선임 순천YWCA 회장과 박소정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 공동대표 등 지역인사들이 4월 22일(토) 아름다운가게 순천중앙점에서 ‘순천YWCA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하루’는 기관,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나눔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순천 주암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순천YWCA는 회원들이 기부한 의류, 도서, 가전 등의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재기부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시민발언대’ 유권자운동



여수YWCA는 제19대 대선을 맞아 시민발언대 설치, 투표 참여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을 펼쳤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직하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투표참여를 다짐했다. 전국 52개 회원YWCA가 동시 진행한 이번 유권자운동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은 YWCA 정책요구서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되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탈북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한 장날



전주YWCA는 4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나눔이 있는 봄 장날’을 성황리에 마쳤다. 탈북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기금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장날은 위원회별로 준비한 김치류, 젓갈류, 수제돈가스, 수제잼 등 먹거리와 속옷, 의류, 이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도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4월 17일(월) 강당에서 2017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도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제주YWCA가 주관하는 도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에는 50세 이상 수강생 20여명이 참여했다. 준·고령자인 교육생들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구직활동을 위해 일자리개척 동아리활동, 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 도배 실습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원전재난영화 ‘판도라’ 공동체상영



논산YWCA는 4월 25일(화) 논산시네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보육시설원장, 지역아동센터장과 관계자, 목회자 등을 초청해 원전재난영화 ‘판도라’를 상영했다.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자 ‘판도라’를 기획한 영화사 뉴(NEW) 한미미 이사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과 우여곡절 끝에 상영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화상영이 끝나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도 펼쳤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창립기주년 감사예배,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대전YWCA는 4월 12일(수) 회원, 자원지도자, 실무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열었다. 이어 2017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을 열고, 위원회별 회원증모 다짐과 ‘천원의 아름다운 꿈’ 희망나무 만들기를 진행했다.

세종YWCA

김정현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세종YWCA는 4월 27일(목) 세종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이사와 실무활동가 등 50명이 모여 2017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엔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실무활동가들의 생생한 사례발표, 팀별 미션수행으로 결속력이 돋보이는 발대식이 되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장년·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업무협약

제천YWCA가 운영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은 4월 26일(목)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장년·고령자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과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열었다. 요양보호사 경험이 없거나 경력단절 구직자, 특히 장년·고령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노인요양기관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2017 위원장 연수



청주YWCA는 4월 12일(수) 충북 증평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에서 위원장 연수를 진행했다. 본부와 각 부속시설에서 활동 중인 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장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청소년 동아리 Y-틴 인준식



충주YWCA는 4월 8일(토) 충주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청소년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동아리 Y-틴 인준식을 열었다.

6월 · June

| 일(SUN)              | 월(MON)   | 화(TUE)   | 수(WED)  | 목(THU)   | 금(FRI)                  | 토(SAT)  |
|---------------------|--|--|---|--|-------------------------|---|
|                     |  |  |   | 1 근로자의 날<br>● 월례야침기도회<br>● 안산Y 성폭력 상담원교육 개강<br>● 창원Y 여성정치 학교 4교시<br>● 논산Y 엄마는 성평등 교육강사 과정 개강<br>● 세종Y 탈핵거리 캠페인 | 2                       | 3 석가탄신일<br>● 안산Y 어린이합창단 '하모니여행' 자선 공연<br>● 제3차 서부지역 협의회                           |
| 4 ● 성남Y 환경의 날 부스 운영 | 5  | 6 현충일  | 7   | 8 ● 포항Y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br>● '일위의 평화학교' 3차포럼   | 9 ● 광양Y 시민소비자 교육        | 10 ● 수원Y 차없는도로 캠페인<br>● 거제Y 엄마아빠가 함께 듣는 양성평등 교육(17, 24일)<br>● 인천Y 경인아라뱃길 EM홍공 던지기 |
| 11                  | 12 ● 남양주Y 전산행정 실무자과정(~28일)<br>● 속초Y 장애인활동 보조인 교육 개강<br>● 남원Y 이사위원 연수 | 13 ● 광주Y 탈핵캠페인                                     | 14 ● 안산Y 생활정치학교 개강<br>● 서귀포Y 멀티미디어 과정 개강<br>● YWCA 직업훈련 담당실무자 워크숍(~15일) | 15 ● 강릉Y 사랑의 세세세세!   | 16 ● 어린이집 신입교사 연수(~17일) | 17 ● 전주Y 토요일 마음 기움학교<br>● 대전Y 행복나팔 아-바다시장<br>● 부천Y 국내입양가족 자조모임                    |
| 18                  | 19 ● 서귀포Y 고령자인재 은행 컴퓨터활용 실무자양성과정 개강                                  | 20 ● 안양Y 돌봄 캠페인                                    | 21  | 22 ● 서울Y 창립95주년 특별행사 뮤지컬 마더하리<br>● 제5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 23 ● 경기지역 역량강화 교육       | 24 ● 마산Y 습지의 숨과 침   |
| 25 6.25한국전쟁         | 26 ● 여수Y 전남YWCA 협의회<br>● 제천Y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강                          | 27 ● 고양Y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br>● 창원Y 28주년 창립 기념일 | 28 ● 순천Y 전남YWCA 협의회<br>● YWCA 여성주의 학교(~30일)                             | 29 ● 제주Y 특성하고 '청년드림 집페어' 박람회<br>● 중부지역 역량강화 교육   | 30 ● 마산Y 부모공감 가족 성장캠프   |   |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걷기



# 2017 여성평화걷기

2017년 5월 27일(토) 오전9시 ~ 오후1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2017 여성영화심포지엄**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  
5월 24일(수) 오후 2시~6시, 프린치스코 교육회관

**발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운동 /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토론**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 / 김귀옥 한성대 교수  
 왜 평화담론의 확산이 시급한가?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평화와 종교 그리고 여성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DM내 남북여성 평화생태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안경정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마음의 38선을 없애는 문화소통의 지속가능한 교류방안 / 최인숙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주최** : 2017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문화세상이프토피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너머서, 두레방,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에큐메니칼청년네트워크, 새로운백년을어는통일여성, 세계교회협의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성연, 참여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민족화해위원회, 민족화해센터, 평화통일연대, 평화어머니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 AOK,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사진가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전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햇살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경기여성단체연합(실무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후원** : K water, 삼선복지재단, 삼선배움과나눔재단, WEL CAN 사회복지법인 위캔